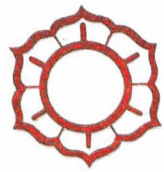


卽身成佛의 大道 - 密敎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 총지종보

남모르게 짓는 죄업  
그과보가 더욱 크고  
남모르게 쌓는 선행  
그 공덕이 한량없네  
- 종조법설집 -

## 제 5 호

등록번호 마-2360호  
등록일자 1995. 8. 29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우) 135-082

발행인 안중호  
편집인 이종석  
인쇄인 김규석

대표전화 (02)552-1080  
발행인실 (02)562-8823  
편집국 (02)508-8933  
광고신청 (02)552-1081  
구독신청 (02)552-1083  
팩스 (02)552-1082

### 주요 기사

- 1면 · 현판식 기념법회
- 2면 · 위원장 인터뷰
- 3면 · 수련대회
- 4면 · 無明 小考
- 5면 · 밀교개론
- 6면 · 신행일기·이런불자
- 7면 · 만보사
- 8면 · 예인을 찾아

### 총지불교대학 안내

- 과 정 : 제2기 기초반
- 내 용 : 근본불교
- 기 간 : 9월11일~11월27일  
(매주 수요일 11시)
- 수강료 : ₩ 20,000  
(수강신청시 납부)
- 신청문의  
☎ 02)552-1080  
508-8933

#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 사회복지위원회·소비자보호위원회 가동

지난 7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소재 불교총지종 본사에서 「사회복지위원회」와 「소비자보호위원회」의 현판식과 기념법회가 봉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종단협의회 의장인 송월주 스님을 비롯하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이며 불교총지종 총리위원장인 범공 대정사,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며 불교총지종 법장원장인 효강 대정사 이외에도 각 종단 총무원장 및 불교진흥원 서근각 이사장,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 스님, 불교텔레비전 대표이사 태응스님, 동국대 송승구 총장, 보건사회부 차관, 승가대 방지하 학장 등 불교계 저명 인사와 정·재계의 관련 인사들이 참석하여 불교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다짐하고 이러한 활동에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소비자보호위원회와 사회복지위원회의 현판식

기법회와 현판식 및 사회복지에 대한 주제발표, 다과회 등의 순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에서 월주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두 위원회의 발족을 위하여 힘써 총지종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것은 범종단적인 의지와 원력이 하나되어 맺어진 고제 최초의 위원회로서 불교계의 사회적 지평을 여는 한줄기 서광이라고 했다. 또한 소비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며 불교총지종 법장원장인 효강 대정사는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공을 초월하여 변함없으나 시대에 맞추어 제도의 방편은 달라져야하므로 우리 불교계도 사회에 직접 참여하여 보살행을 실천해야 할 때가 되었으며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했다.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자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11개 위원회 중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이며 총지종이 주도해야 할 두 위원회 중 우선 사회복지위원회는 불교계의 사회복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소년소녀가장돕기, 장애인 재활 및 어린이 보육사업, 양로사업, 북한동포돕기, 이재민 돕기 등에

서부터 복지센터의 운영 등 사회 각 층의 복지를 위하여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소비자 의식의 계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소비자보호정책 건의, 시장 및 상품정보, 소비자불만처리, 소비자보호에 대한 제도와 법률의 연구·조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인력이

먼저 확보되어야 하는데 불교계의 특성으로 보아 어느 정도의 결집력을 보여 줄지 우려되며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총지종의 주도로 이상 두 위원회의 발족이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종단협의회 산하 나머지 9개 위원회의 활동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불교계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를 바란다

## 신규 종무원 교육

### 중앙 교육원 주최, 10명 수료

중앙교육원(원장 효강)에서는 지난 6월17일부터 7월 동안 총지종 본사에서 상반기 신규종무원 수습교육을 실시했다. 신규종무원 9명은 이 기간 오전에는 법당에서 불공을 하고 범공 통리원장으로부터 총지종의 중지를 배웠으며 오후에는 불교전반에 대해 강의 받았다.

교육원장으로부터는 밀교학을, 원봉 총무부장으로부터는 법의의식의 궤범 종법등을, 법장원 소속 김진태 연구원으로부터는 불교화개론을, 화령 연구원으로부터는 수행체계를, 법

경 연구원으로부터는 종정실무를 각각 배웠다. 수업을 마친 마지막날에는 평가를 해 호응도를 조사하기도 했다.

한편 23일 수료식 교육원장을 비롯한 범공 통리원장, 교육생, 본산 소속 교무들 등 여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생 여러분들은 장차 스승이 될 분들입니다.

이번 교육은 스승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니 이것으로 공부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평소에도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정진해 훌륭한 스승으로 다시 태어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신규종무원 9명 전원이 수료증을 받았으며, 식후 1주일 교육을 기념하는 사진촬영을 하기도 했다. 수료자는 다음과 같다.

이국웅(밀행사) 최순일(정각사) 구창희(정각사) 김정희(정혜서원당) 정성용(통리원) 김은주(법장원) 김은숙(통리원) 안도영(통리원) 김기홍(덕하사) 고춘철(덕하사)교무등.



총지불교대학의 강의 모습.

## 종교생활 체계적 지도

### 총지불교대학, 매주 수요일 기초교리 강의

불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어느 강사의 다소 젊은 강사는 부처님의 깨달음인 사성제(四聖諦)를 칠판에 적성들여 쓰며 설명하고 강의실을 가득 메운 20대에서 60을 넘긴 할머니까지 다양한 연령의 수강생들은 한 자도 놓치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눈을 빛내며 받아적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6-2에 위치한 총지불교대학의 강의 첫날의 강의실 풍경이다. 법장원 소속 김진태 연구원이 강의를 맡은 이날 강의 시간엔 1백여명이 참석해 강의실은 수강생을 수강생을 다 수용할 수 없어 복도에서까지 들켜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총지종 소속의 교도를 비롯 경인교구의 스승님, 교무 등이 주를 이루고, 다른 종단의 불자들이 동참해 강의실이 압축의 여지가 없었다.

앞으로도 수업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30분까지 90분 동안 총지불교대학 2층에서 있고, 강의는 계속 김진태연구원이 맡게된다. 8월28일까지 계속되는 강의는 일본의 불교학자인 水野弘元이 저술한 「원시불교」를 중심으로 기초교리를 교재로 기초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 강좌를 수료한 사람은 수료증을 받으며 총지불교대학 정규과정 입학 시 특전을 받게된다.

이날 강의를 들은 한 수강자는 "그동안 몰랐던 교리를 알게되어 보다 체계적인 종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친구들에게도 좋은 법문을 들려주어야겠다"고 말했다.

### "가야산을 살리자"

#### 5개단체 골프장 건설 중단 촉구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건설 저지에 나선 해인사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지난 6월22일 해인사에서 6월 19일 서울 고등법원의 '해인골프장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결정'에 따른 긴급회의를 갖고 가야산 국립공원을 파괴하고 골프장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해인사, 가야산국립공원골프장건설 저지 대구경북 공동대책위원회, 조계종법종단 대책위원회, 고령군 공동대책위원회 등 5개 단체는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공공자산인 가야산국립공원을 파괴하는 적신호"라며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이번 판결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미국에 밀교 강제

침교도들이 세운 미국에서 최근들어 밀교가 주종을 이루는 티베트불교가 급격히 교세를 키워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북쪽 스투어트 포인트 인근 아산에는 최근 '오디언'이 흥(덕하사) 고춘철(덕하사)교무등.

이 건물은 「백팔번뇌」를 상징하듯 1백8피트(약 32m)높이의 황금빛 본당과 수십개의 승방을 갖추고 있다. 이 사찰 주지 타르탕 툴구는 "불교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많은 미국인을 치유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불교문화의 새시대를 선도하는 - 불교텔레비전



사회복지위원회의 소비자보호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영상포고의



### 새시대 선어. 불교 텔레비전

2천8백만 불자들의 원력으로 세워진 불교텔레비전이 영상포고의 새시대를 선언합니다.

btn 불교텔레비전  
깨달음의 길잡이로서  
무명과 편견과 갈등을 극복하고  
모든 고뇌와 번민 근원에서 벗어나  
밝은 내일을 창조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며,  
온누리가 부처님의 땅이 되도록  
나와 이웃, 나와 사회  
그리고 나와 부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일치문화의 꽃을 피워나갈 것입니다.



본 사 :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번지(금호전기빌딩)  
전화 : 02)3270-3300 팩스 : 3270-3498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260(동양빌딩)  
전화 : 051)645-5114 팩스 : 631-1772



사설

해인골프장 절대 안된다  
불교계 단결로 유사사태 방지를

세계적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는 가야산 해인사 장경각에서 불과 3.5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위정자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수려한 경관이 파괴되고 자연계가 몸살을 앓으며 국민건강과 정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지만 이번의 경우처럼 총격적이고 무모한 경우는 처음이다. 지난번에는 고속전철의 도심통과로 천년 고도를 망쳐놓겠다고 소란을 떨다가 수많은 양식있는 인사들의 반대로 '파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몇 걸음 물러서더니 이번에는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의 훼손을 묵인하고 있다.

각해야 할 것은 이런 일이 우리사회에서 다발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사찰 주변의 아파트 및 위락시설 건립, 유적지의 훼손과 방치, 체육시설을 방자한 산림과 계곡의 훼손 등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지에 대한 파괴와 침해는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는 지경이다. 배금주의와 물질만능의 풍조 속에서 개발의 이름을 가장하여 행하여지는 온갖 작태에 대하여 우리는 심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번 망쳐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자연을 파괴하고 문화유산을 천대한다면 우리의 장래에는 과연 무엇이 남겠는가?

이미 알려진 것처럼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은 지하수 오염과 자연 및 생태계의 파괴를 초래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천년고찰 해인사 주변에 그것도 나라의 보배요 세계의 자랑인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성스러운 곳에 골프장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민족의 자존심을 허물고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기에 족한 행위이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파괴 뒤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의식구조이다. 이번 일만 보더라도 돈에 눈이 먼 업자들은 차치하고라도 건설 자체를 허가해 준 행정당국과 그것의 타당성을 법적으로 보장해 준 사법당국의 정신상태를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을 파괴하고 조상이 물려준 소중한 유산을 천대하는 민족이 어찌 참된 번영과 밝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요행히 물질적으로는 다소 풍족해 질지 모르나 그것이 다시 스스로를 육아 때는 사슴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야산은 다른 국립공원에 비하여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일부의 환경이 파괴되면 인근지역으로의 피해확대는 급속도로 확산될 것이라고 한다. 즉 공사로 인해 수목과 표토를 밀어내므로 보수력 약화로 계곡이 고갈되어 하류 주민들의 식수와 농업용수의 절대부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산사태의 위험은 말할 것도 없고 골프장의 농약살포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생태계 파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경각에 미치게 될 나쁜 영향을 고려하면 이곳의 골프장 허기는 절대 철회되어야 한다. 몇몇 공무원의 그렇고 그런 사연에 얽힌 관계로 허기가 났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이렇게 엄청난 해악을 초래한다는 것은 아무리 법 만능의 세상이라고 해도 기필코 저지되어야 한다.

이런 일을 계기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들어켜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일이 우리사회에서 다발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사찰 주변의 아파트 및 위락시설 건립, 유적지의 훼손과 방치, 체육시설을 방자한 산림과 계곡의 훼손 등 자연환경과 문화유적지에 대한 파괴와 침해는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는 지경이다. 배금주의와 물질만능의 풍조 속에서 개발의 이름을 가장하여 행하여지는 온갖 작태에 대하여 우리는 심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번 망쳐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자연을 파괴하고 문화유산을 천대한다면 우리의 장래에는 과연 무엇이 남겠는가?

요즘의 청소년문제는 심각하다 못해 위험하기까지 하다. 입시를 견디지 못해서, 또는 다른 친구들에 대한 열등감을 해소하지 못해 자살을 하는 청소년의 수는 해마다 늘어만 간다. 최근 신문의 사회면을 채우는 청소년이 저지른 급우 살인사건은 정말 말 입을 다물 수 없는 지경이다. 급우의 돈을 빌려 오락으로 소비하고 그 돈을 갚을 길이 없자 친구를 죽여버린 사건이 얼마전에 있었다. 빌

기자수첩

은 청소년은 또한 어느 누구도 존경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다.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우고 더 나아가 부탄가스를 마신채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른들의 한심한 눈길을 피해 거리로 나가는 것이다. 우리종단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가? 여름이면 수련법회를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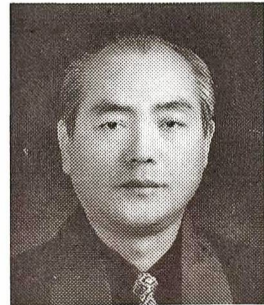
청소년포교의 중요성

린 돈이란 고작해서 7만원이었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은 7만원 보다도 인간의 목숨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친구를 죽이는 죄도 고도 거의 아홉달 동안 태연하게 학교에 다녔다는 것이다. 그의 태연함에 부모도 선생남도 심지어 가까운 친구까지도 그가 살인을 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는 그가 연기를 아주 훌륭하게 했

을 죽이는 일이 언제 어디서든 아주 쉽게 일어나고 또 그것이 영웅시되는 화면을 보고 자란 이들에게서 인간의 목숨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또 오락게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와 싸워 상대편을 제거해나가기로 입력됐다. 어느 누구도 이들에게 인간 의 목숨은 중요하고, 이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잃

최해왔고, 몇몇 사원에서는 매주 청소년법회를 열고 있지만 해마다 청소년 교도 수는 줄어만 간다. 명맥을 유지할 청소년이 없다면 다음 세계에서 우리종단의 존재는 어떻게 되겠는가? 본산에서는 청소년의 중요성을 깨달아 재정과 인력을 투자해 보다 적극적으로 생명의 대한 자비심을 실천했다. 이날 법공위원장은 "물고기를 방생

법공 위원장



문: 종단의 책임자로서 총리원장직을 수행하기도 바쁘실 텐데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까지 맡으셔서 부담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불교계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답: 사실 저희 총지중이 이 일을 맡기에는 벼락치는 느낌도 있습니다만 쉬운 일부터 하나씩 풀어나가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제는 물질만능의 시대가 되어 부처님의 법을 흥포하는데에도 그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활동에

총지인터뷰

사회복지 위원회

같습니다. 일반 불자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불교계 사회복지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앞으로의 전개방향을 가능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재원과 인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는대로 소년소녀가장등기라든가 고아원·재활원·양로원등 복지시설에 대한 물적·인적 지원을 실시하고 복원 동포돕기, 무료 유아원 운영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처음 단계에서는 적은 인력과 재원으로 실시 가능한 것을 시행하고 점차 규모를 확대하여 제도적 조직적으로 복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

소비자보호 위원회

문: 법정위원으로서 또 소비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업무에 부담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앞으로 어떠한 것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답: 현재는 물질주의의 시대입니다. 대량생산·대량소비의 경제구조 가운데서 소비활동이 곧 생활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식을 계몽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생활을 유도하는 것이 곧 재생의세의 보살정신을 구현하는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이러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입니다. 문: 소비자보호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에는 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 우선 소비자의 의식 계몽에 대

효강 위원장



문: 이런 여러가지 활동을 수행하자는 어려운 점도 많으실텐데요.  
답: 어느 분야에나 인력과 재원이 필요한 것은 기본이지만 특히 소비자를 위한 처리는 상당히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보호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소비자 고발센터의 운영인데 사실 저희들로서도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며 유관단체와의 원활한 협조가 요구됩니다. 더구나

복지사업은 불법흥포의 방편  
모든 불자들의 관심과 격려를

직접 참여하여 증생과 더불어 보살행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불교계는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서 복지사업에 관여해 왔습니다만 타종교에 비하면 그 활동이 매우 미약했습니다. 우리 불교계도 이 방면에 좀 더 관심을 쏟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문: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우리도 사회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복지활동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시설의 위탁운영 등도 시도해도 이 방면에 좀 더 관심을 쏟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답: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우리도 사회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복지활동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시설의 위탁운영 등도 시도해도 이 방면에 좀 더 관심을 쏟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문: 이런 일을 수행하려면 상당한 재정이 필요할텐데 재원 마련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답: 우선 종단협의회 산하 여러 종단에서 일정액을 각출하여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자들을 중심으로 한 자선 모금도 한몫 거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지할 청소년이 없다면 다음 세계에서 우리종단의 존재는 어떻게 되겠는가?

문: 앞으로의 복지사업은 어떤 식으로 전개하실 계획입니까?  
답: 우선 순위는 것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각 종단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급선무일 것

건전한 경제생활로 불국정토를  
소비자계몽에서 불만처리까지

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보살정신을 바탕으로 근검절약을 생활화하고 가능하면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겠지요. 그러므로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하고 이것이 자연보호에도 연결되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또한 효율적인 소비활동을 돕기위하여 다양한 상품과 시장, 가격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실한 불자기업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불교발전에 더욱 기여하도록 하겠습니

이런 문제들은 잘못 다루어질 경우 한 기업의 사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한편 인력과 관련된 문제로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질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우선은 순위는 분야부터 개척해야겠지요. 예를 들면 불교의 관련된 제품에 대한 불만을 처리해 주는 단계에서 일상 소비제품, 나아가서 전문적인 제품이나 서비스 분야로 점차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문: 위원회가 본격 가동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불교계에 하고 싶은 말씀은...  
답: 사실 저희들도 이 분야는 생소하며 여기에 맞는 재원 마련과 인력이 갖추어지면 아무래도 연말정도가 되어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시작은 다소 늦어지더라도 정확한 방향설정이 중요하므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완벽한 프로그램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부대중 여러분의 격려와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문: 위원회가 본격 가동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불교계에 하고 싶은 말씀은...  
답: 사실 저희들도 이 분야는 생소하며 여기에 맞는 재원 마련과 인력이 갖추어지면 아무래도 연말정도가 되어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시작은 다소 늦어지더라도 정확한 방향설정이 중요하므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완벽한 프로그램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부대중 여러분의 격려와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단신

방생법회 성료

경인교구에서는 지난 16일 강원도 탁사정에서 방생법회를 다녀왔다. 총지사 관성사 및 인사 실지사 정심사 벽봉사 정혜서원당 지인사 법천사 등의 사원에서 1백여명의 교도가 참석해 생명의 대한 자비심을 실천했다. 이날 법공위원장은 "물고기를 방생

하는 것은 자비심의 확대를 의미하지만, 앞으로 우리 종단은 인간방생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서 3백여권 기증

본산 법정원(원장 효강)에서는 고 김봉운씨가 생전에 소장했던 불서 3백48권을 유가족으로부터 기증받았다. 기증받은 불서는 주로 일본인 학자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원서로 돼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田中順照의

「空觀과 唯識觀」과 같은 국내에 구하기 어려운 기증한 자료도 있다.

육자진언 봉안

본산 총지사에서는 지난 5월23일 본당 외벽에 육자진언을 봉안했다. 담당 법공 통리원장을 비롯한 효강 법정원장 등 교구 일동은 본당에서 육자진언 봉안 불공을 거행했다.

관리과정에 정성통교구 불교총지중 통리원(원장 법공)에

서는 지난 6월1일 임시회의를 열어 정성통교구를 관리과정에, 감재준교무를 총무계장에 각각 임명했다.

49일불공 회향

국운음창과 조국평화통일을 위한 하반기 49일불공이 지난 5월 28일 시작해 7월15일 끝났다. 회향일 전국 각 사원에서는 불공을 마친후 스승님과 교도들이 어울려 다과를 들며 더욱더 불공하고 원만하게 회향함을 서로 자축했다.

사회복지위원회·소비자 보호위원회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재물을 네 몫으로 나누어 쓰라  
좋은 직업과 훌륭한 기술을 배워서  
방편으로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을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몫은 자기  
생활에 쓰고, 두 몫으로는 사업을  
경영하고, 남은 한 몫은 장차하여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데 써야 할  
것이다.

-잡아함경(雜阿含經)-

불교총지중 신정회



# 총지인 기본자세 교육

## 어린이수련법회, 지난 22~23일 총무수련원서 학생수련대회, 지난 25~27일 총지종수련원서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올바른 신앙관 정립과 협동심 배양을 위해 총지종에서는 예년에 이어 여름수련법회를 개최했다. 단체생활을 통하여 건전한 대인관계를 형성함과 아울러 종교인으로서의 기본자세를 익히고 올바른 인생관을 갖게함을 목적으로 한 이번 수련회에는 점동터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

초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한 어린이불자여름수련법회는 지난22일부터 1박2일 동안 충청북도 온양 총무수련원에서 열렸다. 「정직한 어린이」를 주제로한 이번 여름수련법회엔 2백여명의 어린이가 참여해 여러 선생님과 스승님의 지도를 받으며 총지종교인으로서의 기본자세를 익히고 올바른 인생관을 갖게함을 목적으로 한 이번 수련회에는 점동터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

초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한 어린이불자여름수련법회는 지난22일부터 1박2일 동안 충청북도 온양 총무수련원에서 열렸다. 「정직한 어린이」를 주제로한 이번 여름수련법회엔 2백여명의 어린이가 참여해 여러 선생님과 스승님의 지도를 받으며 총지종교인으로서의 기본자세를 익히고 올바른 인생관을 갖게함을 목적으로 한 이번 수련회에는 점동터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

첫날엔 오후 2시 입소식, 이밖에 수업과 저녁법회, 캠프파이어를 하고 오후 11시에 취침에 들어갔다. 그리고 둘째날엔 오전 6시에 기상해 법회, 레크리에이션, 체력단련을 하고, 퇴소식은 오후 1시에 있었다.

한편 입소식에서 법공 통리원장은 대화사를 통해 "자기자신에게 정직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공부도 놀기도 잘하는 어린이가 나중에 훌륭한 어른이 된다"고 말했다. 퇴소식에서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수련법회를 총평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수련법회는 7월25일부터 2박3일 동안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총지종수련원에서 있었다. 불교총지종의 전국학생을 대상으로한 이번 수련법회에는 2백여명이 참가해 의강 해암 원봉 등의 스승님과 법장원 소속 화령 연구원으로부터 총지인으로서의 기본자세를 배우고, 올바른 인생관을 세우도록 정신교육을 받았다.

인으로서 올바른 인생관을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거기에 맞추어 스승님들의 강의시간을 많이 준비했다.

문: 수련회를 마치며 아쉬운 점은?  
답: 최근 들어 불교계에서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수련회를 활발하게 개최하고 있다. 역사기행 문화교실 과학캠프 등의 다양한 주제 아래 실시하는 비종교계의 여름수련회를 비롯 불교계에서는 '출가3박4일' 등의 제목으로 그 기간 동안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출가자의 생활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독특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데. 우리의 색깔을 분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수련회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학생수련법회는 참가자들이 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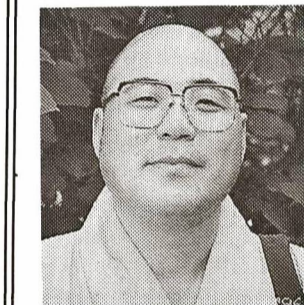
지난달엔 수련회엔의 관심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조사를 하고 오전9시 퇴소식과 시상식을 거행했다.

### 最古불경 발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불경이 발견됐다. 기원전 1세기말에서 2세기초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세계 최고의 불경이 영국에서 발견된 것이다.

런던 소재 영국도서관이 골동품 거래상으로부터 구입한 이 불경은 자작나무 껍질에 고대 인도문자로 석가모니의 가르침과 시를 기록한 것이다.

이 불경 발견으로 불경연구가 석가모니(기원전 486년 입적)사후 4백~5백년 사이에 제작된 경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됐다. 이것은 팔리어 경전보다 1백년 정도 더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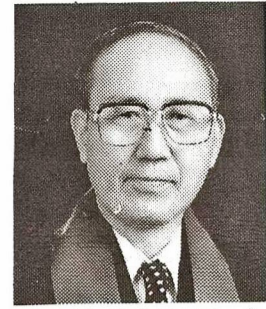


普覺(승가대교수)

최근 불교계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불교는 자신만 잘살기 위해 수행할 뿐 불우한 이웃에게는 무관심했다는 평가를 받아온게 사실이다. 즉 불교계의 사회참여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게 불교계 안팎의 주장이었다. 이런 마당에 불교계에서 이는 사회복지사업 바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인 것이다.

사실 따지고보면 불교계가 사회복지사업에 아주 무관심했던 것도 아니다. 불교는 우리민족과 더불어 1600년의 역사를 함께 해오며 많은 사회활동을 해왔다. 고대에는 사회복지사업이 종교계의 책임이었다. 사회복지사업이 종교와 더불어 발달해온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

### 지상설법



수성(개천사 주교)

방생이라는 거룩한 불사는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정신을 본받아 행하는 길이자 불심을 일깨우는 정신적 원동력이 되며, 나아가서는 봉사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된다.

방생이란 불제자들이 보살의 행을 닦고자 자비한 마음을 일으켜서 허공과 옥지, 물속에 사는 못생김들이 다른 생명에 의해 목숨을 잃게된 것을 구해주거나 허무하게 죽어가는 생명에게 자유롭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는 것을 말한다.

방생시 불자들은 자연환경에 손상이 끼치지 않도록 새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놓아준 생명들이 다시는 사람이거나 사람 아닌 어떤 것에 잡히거나 잡아먹히지 않음에 평화를 살다가 인연이 다하여 몸을 바랄때에는 우주에 충만하신 법신부처님의 기피력으로 천상에 나가거나 인간계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서원해야 한다.

인간으로 태어나도록 기원하는 이유는 사람은 자성을 닦아서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보리행을 닦을 줄 알고 또 악은 멀리하고 좋은 행을 실천할 줄 알기 때문이다.

자자자수(자자自受)란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악을 자기가 받음을 의미한다. 불에 써를 뿌린 것이 있었으므로 가을에 거둘 수 있는 곡식이 있듯이 보리행을 실천하여

지해광명을 얻고 또 보살의 도리를 닦아야 밀업국도를 이루게 되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 방생시 물고 기들이 이 이치를 알기를 서원해야 한다.

물고기에게도 본래 불성은 있다. 사람도 자성을 깨치지 못하거나 깨치더라도 실질을 못한다면 날짐승과 다름없다. 지금은 비록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사도의 지탄을 받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면 짐승이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람이기때문에 의사를 표시하고 남과 더불어 사는 행동을 하게 되며 대바심을 발하여 방생이라는 행을 하게되는 것이다.

오늘 내가 행한 어류의 방생만이 좋은 보살행이었을까?

대자연의 맑고 깨끗한 오염되지 않은 물과 숲에 살게한 것도 좋은 일이다. 하나 지구상에는 지금 굶주림으로 병으로 죽어가는 생물이 너무나 많다. 아니, 먼곳의 사정을 말하기 보다 우리민족인 이북의 실상을 보자. 하루에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무수하고, 배가 고파 남의 물건을 훔치다 들리면 공개처형을 당할 만큼 도둑이 들끓는다고 한다. 못본채 넘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그렇다고 도와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것 보다도 우리 가까운 곳에서 숨을 제대로 못쉬는 고통에서 해마다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이 너무나

## 방생을 새롭게

다. 사회복지사업의 이념이나 실천을 불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고려는 불교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교가 성행하고 있었다. 당시 빈민구제기관이었던 동서대비원에서 스님들이 직접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간호했으며, 불교국이었던 만큼 보살정신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다.

이 다 성불할 때까지는 열반에 들지 않겠다고 서원한 성인이며 또한 보살의 상대의 아픔에 함께 고통받고 상대의 기쁨을 완전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분과 같은 마음을 체득하고자 하는게 모든 불자의 비램인 것이다. 보살정신을 실천하게 사회복지사다. 그렇다면 불교는 종교교차제가 사회복지지를 이상으로 한다

어려운 이유도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5%를 차지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불교계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 시설을 많이 확충해야한다. 치매노인을 위한 정신병원을 건립하고, 요양원 특수학교 등을 세워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해야하는 것이다. 이를 원만성취하기 위한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의 확보다. 그러나 이 문제

### 실무자 인터뷰

올 여름에 열린 두 수련회, 제3회 어린이불자 여름수련법회와 제6회 여름 학생수련대회를 실질적으로 이끈 강재훈·박현수교무와 이번 수련회를 평가해본다.

문: 이번 수련회가 이전과 다른 점은?  
답: 어린이불자수련회는 어린이들이 불교에 흥미를 느끼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종전에는 아이들에게 우리 총지종을 인식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더니, 오히려 종교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이들에게 교리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교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게 더욱 중요하다.

학생수련법회는 참가자들이 총지

인으로서 올바른 인생관을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거기에 맞추어 스승님들의 강의시간을 많이 준비했다.

문: 수련회를 마치며 아쉬운 점은?  
답: 최근 들어 불교계에서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수련회를 활발하게 개최하고 있다. 역사기행 문화교실 과학캠프 등의 다양한 주제 아래 실시하는 비종교계의 여름수련회를 비롯 불교계에서는 '출가3박4일' 등의 제목으로 그 기간 동안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출가자의 생활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독특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데. 우리의 색깔을 분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수련회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학생수련법회는 참가자들이 총지

인으로서 올바른 인생관을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거기에 맞추어 스승님들의 강의시간을 많이 준비했다.

문: 수련회를 마치며 아쉬운 점은?  
답: 최근 들어 불교계에서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수련회를 활발하게 개최하고 있다. 역사기행 문화교실 과학캠프 등의 다양한 주제 아래 실시하는 비종교계의 여름수련회를 비롯 불교계에서는 '출가3박4일' 등의 제목으로 그 기간 동안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출가자의 생활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독특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데. 우리의 색깔을 분명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수련회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학생수련법회는 참가자들이 총지

### “자비정신 실천은 사회복지활동”

### 보각스님 주제발표, 「불교사회복지사업의 전망과 방향」

이런 전통이 계승돼 지금까지도 전국의 어느 사찰을 막론하고 병든 노인을 양육하고,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양육한다.

불자들의 이상은 보살도인 삼구보리 하회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다. 즉 위로는 자기를 위하여 부처의 지혜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것을 말한다. 대승불교에서는 당연히 하회중생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여자신도를 보살이라고 부른다. 보살은 이미 부처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중생을 한명하명

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다. 불교국인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정신을 실천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사회복지사업은 현대의 시대적 조류에 동승해야 한다. 사찰에서 아이 몇 명을 키우는 주먹구구식의 사회복지활동은 지금 시대에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큰 생산성도 없는 것이다. 과학시대에 맞게 사회복지사업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돼야 한다. 불교계가 사회활동에 등한하다는 비난을 면키

도 불자들이 자비행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가능하다.부처님의 초기경전인 아함경에는 불자들은 자기수익의 10분의 1을 남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기록이 있다. 부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제대로 실천만 된다면 불교사회복지사업은 전망적일 것이다.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유념해서 앞으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사회복지위원회와 소비자위원회의 활동에 재정적으로든 인력적으로든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 사회복지위원회와 소비자보호위원회의 현판법회에 동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                |
|------------------|----------------|
| 조계종총무원장 송월주스님의   | 구룡사 주지 정우 스님   |
| 각종단 총무원장 스님      | 망월사 선원장 능엄스님   |
| 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 박사  | 불교부산방송 류진수 사장  |
| 불교방송이사장 종하스님     | 불교방송 송병욱 상무    |
| 불교텔레비전 대표이사 태웅스님 | 서석재 국회정각회 회장   |
| 중앙승가대학장 방지하 스님   | 조순 서울시장        |
| 동국대총장 송석구 박사     |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
| 한국불교문화교류회 민을식이사  | 신한국당 대표위원 이홍구  |
| 군불교진흥회 박상길 사장    | 문화체육부 장관 김영수   |
| 불교사회복지협의회 김각현 스님 | 보건사회부 차관 이기호   |
| 소적새마을원장 보각 스님    | 강남구청장 권문용외     |
| 조계종 복지재단 구현중 스님  | 여러분            |

사회복지 위원회 위원장/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법공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불교총지종 법장원장 효강 **합장**

## 자비정신을 실천합시다

### 사회복지위원회·소비자보호위원회 사업추진을 위한 후원회 가입 동참 권선문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불우이웃돕기 보육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처리 보상케하는 등,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제현실에서 소비자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 되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하루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는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됩니다.

부디 이 인연 공덕으로 한량없는 지혜와 복덕이 가내에 충만하시기를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 예금주: (재)불교총지종
- 계좌번호: 한일은행 역삼동지점  
122-022117-13-202(사회복지위원회)  
122-022051-13-501(소비자보호위원회)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전화: 3452(7485~6)



다시 생각하는 불교

# 인류의 선택은 불교의 수행법

金晋台(법장원 연구원)



지혜는 명상을 통하여 개발된다. 평범하게 흘러가는 단상(短想)들도 불교적 사유에 의하여 생활의 지혜로 되살아난다.

지금 우리 모두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얼마전 우리는 한 사건에 연루된 여러 파렴치한들 때문에 온 나라가 부끄러웠다. 그러한 비슷한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 어제는 여염집 아내들의 가공할 외도에 온 나라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어디까지 갈런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조상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영영 잊고싶은 사건들이다. 끝없는 무례함의 끝없는 연속이다.

禮는 부끄러움에서 나오는 것인데 오늘날의 우리들은 너무나 뻔뻔스럽다.

某 先生님께서서는 좀더 세월이 흐르면 그때의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몰라 사전을 찾아봐야 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마따나 그런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것만 같다. 왜, 이 모양들인가?

오늘날 우리들은 권력이나 돈이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면서기면 면서기만큼의 도둑놈이고, 1백억 재산가면 대부분 그 만큼의 파렴치한이었다.

왜, 그럴까?  
많은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신앙의 방향과 교육이 제갈길을 잘못 들은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다.

다. 오직 자기와 자기집안의 命과 福만을 빌고, 꼭 무엇(예를들면, 높은 지위·큰재산가 등)이 되라고만 교육을 시키니 오늘의 이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자기위주의 이기적인 기도로는 그 기도의 힘이 어떻게 미칠까? 도둑놈이나 파렴치한이 될 수밖에 없다. 또 무엇이 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므로 자기의 경쟁자라는 적이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사람들끼리는 친하게 될리가 없다. 서로 갈등하고 투쟁으로 적대시하는 인간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남을 위해 기도하고, 물보를 가리지 않고 무엇이 될려고 하기 보다는 참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교육의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아름다운 마음에서 도둑질하는 인간이 태어날리가 생겨날리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의 보다 근원적인 문제점은 어디에 있을까?

대부분의 인간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고대의 서양철학자 에피쿠로스의 (행복공식) 곧 (욕망/성취)에서 보여지듯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어느정도 성취하

느냐에 있다. 욕망의 성취도가 높아야 행복하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이러한 공식도 어느 정도의 진리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많은 것들이 이 공식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욕망을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한 큰 잘못이 있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란 끝이 없는 것으로 처음의 욕망이 성취되자마자 곧바로 모양을 달리해서 쫓아 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다. 물론 그 다음의 욕망도 성취되자마자 또다시 쫓아 버리는 꼴이 없는 길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항상 끝없는 불로 행복을 목달라 하고 끝없는 쫓아 사달리게끔 구조지워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一切皆苦'라는 불교의 진리다.

인간의 제도인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도 이 공식의 분자인 성취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그러한 방향으로 온 인류가 아무리 달려 가봐야 행복은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만족의 길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스승이신 석가모니께서는 여기에서 성취욕이 아닌 인간의 욕망 쪽으로 문제해결의 방향을 돌렸으니, 이 어찌야말로 이러한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방법을 우리 인류에게 제시하신 것이다. 대개 분자의 성취는 물질적인 문제로서 이것은 유한한 것이므로 이것의 성취에는 수많은 인간들의 갈등이 있게되고 여기에서 힘이 있는자가 부정확한 방법으로 착취하게 되어 있어 부쟁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분자의 욕망은 마음의 문제로 서 타인들과의 갈등이나 투쟁이 아닌 자신의 수행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분자의 욕망을 수행을 통해 잘 다스릴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행복해 질 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길은 만족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욕망이 줄어들때 성취가 고정되더라도 만족도는 높아가며, 극단적으로 욕망이 "0"이 되면 성취는 찬밥 한 덩어리에도 무한의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0÷1(찬밥 한 덩어리)=∞(무한대)이기 때문이다. 석조께서 제시한 가르침도 바로 이러한 욕망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데 있으며, 그 다스림의 방법이 다양한 수행의 형태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계에서 살기를 바란다면, 인류는 성취욕으로만 치달린 사고를 전환하여 욕망을 다스리는 수행으로 나아가야 한다.

수행의 길, 그 길밖에는 우리 인류의 미래를 보장할 아무런 대안이 없다. 바야흐로 불교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점에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 법장원에서

華靈

〈연구원〉

### 1. 無明의 概念

無明은 산스크리트어로 avidya, 팔리어로 avijja이다. 無知(ajana)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불교에서는 물론 바라문교, 힌두교에서도 중요한 개념의 술어이다. 無明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avidya와 비슷한 개념이 나타나는 것은 고 우파니샤드에서이다. 정동바라문의 체계내에서 무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요가派와 베단타派(베단타(Vedanta)는 베다성전의 마지막 부분을 이루는 奧義書로서 우파니샤드에서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일대 6파 철학의 하나. 그 학설은 절대자 브라흐만을 인식함으로써 해탈에 이르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에서이다. 요가파에서는 윤회의 근본 원인인 다섯가지 번뇌(1)無明 2)自己意識 3)貪慾 4)憎惡 5)生存慾) 가운데에서 가장 근본적인 번뇌로서 다른 번뇌의 기반이 되며 업의 축적과 과보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베단타파, 특히 不二元論派에서는 그 체계의 중심적 개념의 하나로 삼고 있다. 상카라에서는 심리인식상의 잘못 혹은 본래적 결합이었던 무명이 후대의 불이원론파에서는 無始의 質의 형이상학적 실체 또는 우주의 質料因으로 생각되어졌다.

불교에서도 무명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사물의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不如實知見으로 표현되었다. 원시불전에서의 무명의 대표적 용법은 十二因緣의 第一支로서의 무명이다. 불교에서 無明은 大煩惱地의 하나로 보았으며 唯識派에서는 根本煩惱의 하나로 간주했다. 《大乘起信論》에서는 마음이 마음의 본성을 모르기 때문에 不相應의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며 無明이 일어나는 것이 무명이라고 했다.

2. 古우파니샤드에서의 無明  
한마디로 우파니샤드라고 하여도 그 성립은 일시에 이루어졌다기보다 기원전 오백년경을 중심으로 전후 수백년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古우파니샤드에서도 무명에 대한 관념이 발전·변천한 것은 당연하다. 古우파니샤드는 일반적으로 초기·중기·후기로 나누어지는데 초기에서는 1)꿈에서 보는 대상에 관하여, 覺醒 상태에서 보는 대상에게서 느끼는 것과 같은 공포를 일으키는 원인, 2) 바야흐로 불교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점에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 無明小考

으로는 祭式을 가리킴, 4)지식의 결여 즉 단순히 na veda(알지 못함)라는 의미였다. 중기에서는 4)의 예로 쓰이는 외에는 모두 5)경험적 지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것은 무명의 기원 또는 基體(asraya)에 관한 고찰이 시작되어 우파니샤드의 哲人은 이것을 최고 브라흐만에서 구하고 있다. 후기우파니샤드에서는 6)진리를 비진리로 보는 작용을 의미하며 무명에 幻惑의 내지 幻影主義의 성격이 부여되어 후대의 상카라의 용법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전기에서 계속된 무명의 기원을 문제로 하여 브라흐마나스파티(Brahmanspati, 일체만유의 창조신, 祈禱主)가 인드라의 안전을 지키고 아수라를 멸하기 위하여 무명을 창조했다고 한다.

3. 不二元論에서의 無明  
베단타파에서의 不二元論의 전통은 상카라 이전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무명의 관념에 일각한 幻影主義의 不二元論을 확립하여 그것을

것, 즉 통각능이 외의 어떠한 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 4. 佛敎에서의 無明

無明은 불교에서 가장 근본적인 번뇌로 여겨진다. 語源적으로는 vid(이해하다, 알다)라는 語根에 부정을 표시하는 접두사 a를 붙인 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無知를 일컫는다. 초기경전인 팔리어의 《相應部》와 漢譯《雜阿含》 등에 의하면 그것은 苦·集·滅·道의 四諦에 관한 무지이며 五蘊과 十二處 등이 無常이라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요컨대 불교에서 말하는 道理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진실에 어두우므로 無明인 것이다. 《雜阿含》에는 무명을 일체의 惡·不善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도 있다. 또 무명은 근본불교 이래의 중요한 설인 十二支緣起의 第一支로 꼽히고 있다. 원래 이 설은 현실의 苦의 상태인 輪廻의 生存을 직시하여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밝히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불교에서 말하는 도리가 정확히 이해되면 貪·瞋의 번뇌는 생기지 않게 된다.

무명의 본질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대로 여러 가지의 議論이 있어 왔으며 불교내부에서도 통일된 견해는 없다. 예를 들면 (과거의) 모든 번뇌는 무명이라고 하는 설(施設足論)이 있지만 거기에 관해서도 위에서처럼 다른 번뇌와 나란히 무명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무명을 번뇌의 총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反論(俱舍論)도 있다. 또한 무명을 意志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완전히 知的인 것으로 보거나 하는 것들도 지금까지 명확하게 결론이 나있지 않다. 즉 《大毘婆沙論》에서는 무명인 단순히 明(vidya)이 아닌 무명인 설인 十二支緣起의 第一支로 꼽히고 있다. 원래 이 설은 현실의 苦의 상태인 輪廻의 生存을 직시하여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밝히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 무명을 아는 것이 바로 해탈 연기의 도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이 무명

베단타의 주요 조류로 한 것은 상카라에서였다. 그 중심사상은 개인의 본체인 아트만은 절대자 브라흐만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에 있는데 輪廻 중에 있는 사물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러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하여 이 개념을 도입했다. 브라흐만은 아트만 이외의 모든 것은 身體·感官·感覺機能에 이르기 까지 무명에 의하여 잘못 상정된 것에 불과한 본래 실재는 없으며 무명을 양자는 완전히 동일해 진다고 하는 주장이었다. 그것에 의하면 무명이란 "甲의 성질을 乙에 의탁하는 것(adhyasa, adhyaropana)"이며 "의탁"이란 이전에 知覺된 甲이 想起의 형태로 乙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즉 무명이란 아트만과 비아트만과의 상호의탁(itaretaradhyaropana)이다. 예를 들면 새끼줄을 뱀으로 잘못 알 때가 있는데 이것은 일찍이 본적이 있는 뱀의 성질을 새끼줄에 의탁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상사람들은 무명 때문에 나라고 하는 관념의 주체를 아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나라고 하는 관념의 주체는 아트만의 순수정死後 아트만이 그의 신체를 감싸는 무의식상태, 3)非知識, 즉 브라흐만의 지식이 아니라는 뜻으로 구체적

苦·生·取·愛라고 하는 五支緣起 등의 고찰을 통하여 論·名色을 포함한 九支(혹은 十支)緣起說이 고찰되고 최후로 行·無明이 포함된 十二緣起說이 말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十二支說이 일단 제시된 후에는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무명에 관한 해석도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三世兩重因果說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서 무명은 과거의 고의 원인을 규명하여 인과관계를 고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근원인 무명이 明으로 전환하는 것에 의하여 즉 四諦의 인과 관계를 바로 이해하는 것에 의하여 苦의 생존이 끝나고 열반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명은 일반적으로 근본불교 가운데서 설계된 수많은 번뇌 가운데 가장 중요한 一群을 형성하는 貪(raga)·瞋(dvesa)·癡(moha)의 三不善根 가운데서 마지막의 癡와 같은 뜻으로 취급된다. 여기에서 貪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 癡는 싫어하는 대상에 대한 反感·嫌惡이며 이 두 개는 말하자면 情的인 번뇌인데 대하여 癡는 四諦와 緣起 등의 불교의 도리를 모르는 것으로서 知的인 번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經量部, 《誠實論》 등은 무명의 본질을 慧로 보고 순전히 知的인 것으로 이해했다. 有部나 唯識宗에서는 무명을 相應無明과 不共無明으로 나눈다. 상응무명은 獨頭無明이라고도 하며 貪·瞋·慢 등의 다른 隨眠과 상응하여 일어나 독립하여 작용하지 않는 무명이며 불공무명은 다른 번뇌와 관계없이 일어나 四諦의 도리를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명이다. 唯識宗에서는 불공무명을 다시 恒行不共無明과 獨行不共無明으로 나눈다. 前者는 第七末那識과 상응하는 무명으로 貪 등의 근본번뇌와 상응하여 일어나나 모든 범부의 마음 속에 늘 쉬고 나타나는 작용이란 점에서 第六意識과 상응하는 무명과 다르기 때문에 不共이라 한다는 것이다. 後者는 재육의식과 상응하는 무명으로 다른 근본번뇌와 상응하지 않고 홀로 일어남으로 독립불공이라 일컫는다. 이러한 설은 《發智論》(大毘婆沙論)에서 보이며 《瑜伽師地論》에서도 나타난다. 또 《勝鬘經》에서는 無明住地(《勝鬘經》에서는 이것을 모든 번뇌가 일어나는 근원이며 오직 如來의 菩提智만이 이것을 끊을 수 있다고 한다.)의 번뇌가 설계된다. 이것은 마음과 상응하지 않는 無始의 무명으로서 말하자면 無知의 근원인데 不共無明의 사상이 발전한 것으로 보여진다.

## 부처님의 자비를 온누리에...

● 발전 사회복지위원회·소비자보호위원회



불교총지중 경인교구장  
경관 합장

##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소비자보호위원회



불교총지중 부산·경남교구장  
의 강 합장



밀고개론

# 민족종교와 첩습

## 효강 법장원장

인도에서 정글을 걸어갈때에는 뱀을 잡기 위해 "휴휴"하는 주문을 소리내면서 걸어가는 것은 바로 생활의 지혜인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경전에 도입되었던 것이다. 현대에 사는 우리들이 합리주의가 지배하는 현대사회의 환경 속에서 생활의 지혜에 대하여 설한 경전을 보면 그것은 고대인의 주술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주술로 볼 것인가? 생활의 기술로 볼 것인가? 우리들이 현대적 판단으로 구별해서 안되는 것이다. 예를들면 석존께서는 주술을 어떻게 생각하셨던가 할 때 그것은 현대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주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술의 역사를 고찰해보면 석존께서는 원칙적으로 주술을 부인하셨다. 불교를 수행하는 불제자들은 그러한데에 현혹되지 않고 입심으로 마음의 정화에 정진할 때를 이루고 하셨다는 것이다. 당시 내려오던 여러 가지 생활습관, 종교의례를 불교교단에 도입하는 것을 부정하셨다.

그러나 석존께서는 그것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다. 당시 주술을 부정한다는 것은 생활기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었다. 인도의 종교는 매우 흥미로운 점이 많다. 힌두교가 현대의 인도종교의 기반이 되고 있다. 그것은 언어상

에는 종교라고 생각되지만은 우리들이 말하는 그러한 뜻의 종교라고는 할 수 없다. 「힌두이즘」이라는 것은 인도에 있어서는 생활 그 자체인 것이다. 우리들은 종교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인도인에 있어서는 그것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석존께서는 지금까지의 바라문 종교

를 배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었지만 대승불교에 있어서는 그 주체가 재가인 것이다. 자기 자신의 생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생활의 지주로서 불교를 신앙해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대승불교교단은 크게 성장되어 확산해 나가게 되었다. 대승불교는 기원 전후해서 인도에서 일어나게 되었지만 그

여 내려오던 바라문사회의 우위성이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하게 되고 갠지스강 중류지역에 상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계층이 대두하게 되었다. 그렇게 됨으로써 여태까지의 농촌을 중심시점으로 펼쳐나갔던 바라문교의 사상 또는 체제를 자유롭게 비판하는 계층이 생겨나게 되었다. 석존도 그가운데 한 분이었던 것이다. 자이나교도 그 유(類)에 속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비교적 강력한 반바라문교적인 자유사상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때까지의 권위에 대하여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확립하여 새 종교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기원전 5~6세기경에 출현하게 된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불교가 갠지스강 중류지방에서 그 주변부에 확산되어 나가게 되었지만 인도 대승생활속에 깊이 스며들었던 바라문교적인 전통을 끝내 완전 제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불교는 갠지스강 중류에서 확산되어 사회기반이 바라문적인 농촌사회로 파급되어 나가게 된다. 그렇게 되어 나갈 때 인도의 전통적인 생활기술을 불교 안으로 수용하지 아니하면 불교가 전파되어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그 결과 불교는 바라문과는 절연한 자유사상에서 출발하면서 일상생활의 기술로서 전통적인 종교의식을 수용하게끔 되었다. 이때까지의 농촌을 중심으로 하

### 바라문과는 절연한 자유사상에서 출발하였지만 일상생활의 기술로서 전통적인 종교의식을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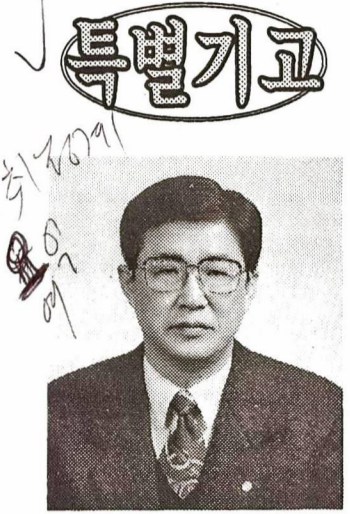
의식은 마음의 정화 수행에 있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호신(護身)을 위한 생활기술로 삼고있는 주술을 억지로 부정할 수는 없었다.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 묵인상태였다고 한다. 전술한 바 그러한 것들이 인도인의 생활속에는 지속되고 있었다.원시 불교의 불교교단에 있어서는 도심견고(道心堅固)한 자세로서 불교수행을 하는 소수의 엘리트에 국한되어 있었을 때에는 그와같이 바라문교적

과 같이 확산해 나가게 되었기 때문에 불교는 남으로 북으로 아세아 전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종래 내려오던 의식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주술적 요소도 적극적으로 불교에 수용하게끔 되었다. 인도에 있어서 기원전 5세기 내지 6세기 경에 이르러서 갠지스강 중류 지역에서는 비교적 진보적인 자유사상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을 때에 그와같이 바라문교적

을 끝내 완전 제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불교는 갠지스강 중류에서 확산되어 사회기반이 바라문적인 농촌사회로 파급되어 나가게 된다. 그렇게 되어 나갈 때 인도의 전통적인 생활기술을 불교 안으로 수용하지 아니하면 불교가 전파되어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그 결과 불교는 바라문과는 절연한 자유사상에서 출발하면서 일상생활의 기술로서 전통적인 종교의식을 수용하게끔 되었다. 이때까지의 농촌을 중심으로 하

다. 이때까지의 농촌을 중심으로 하

불교는 사회조직체의 하나인 종교적 실재로서 존립해온 동시에 사람들의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사회적 실재로서 존립해왔다. 이러한 불교는 佛·法·僧으로 구성되며,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三聚淨戒(律儀戒·善法戒·饑饉衆生戒)를 실천해가는 사회제도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불교는 종교적 기능과 전체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사회적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하겠다. 특히 불교사원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조직체의 하나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간사회가 하나의 개체로서 존속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종교를 포함한 몇 가지 필수적인 제도적 기능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수반되는 일차적 기능에 대해 길버트와 스펙트는 생산·분배·소비, 사회화, 사회통제, 사회통합, 상호보조 등이라고 하였다. 또 모버그는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더욱 구체화하여 사회화기능, 신분부여기능, 친교적기능, 사회연대기능, 사회안정기능, 사회통제기능, 사회개혁기능, 사회복지기능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이와같이 어떤 사회제도의 기능에 다 사회복지적 기능이 있고, 각 제도 간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용하지 아니하면 불교가 전파되어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그 결과 불교는 바라문과는 절연한 자유사상에서 출발하면서 일상생활의 기술로서 전통적인 종교의식을 수용하게끔 되었다. 이때까지의 농촌을 중심으로 하



김용택교수(동국대사회학과)

지않는 것이 특징이라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의 海野幸徳은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종교적 구제를 포함한 종교적 사회사업은 사원 및 교회의 사회사업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것들은 엄밀하게는 사회사업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며, 또 종교 내부로부터도

는 다시 종교와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1960년대부터 과학의 발전자체가 종교적 세계에 관심을 보이지 시작하였고, 또 다원화의 경향, 혹은 기계론적, 계량적인 사고에 대한 반성 등을 들수가 있다. 이러한 추세는 오직 인간만이 중심이 아니고, 살아가는 삶, 즉,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세계를 근거로 하여 새로운 사고를 만들어가려는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결국 종교의 재인식에서 얻어질 수 있으며, 이것이 곧 종교와 사회복지의 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경향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불교의 사회복지기능을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치료적 기능을 들 수가 있다. 불교사회복지활동을 통해 빈곤의 악순환을 막거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공부방 탁아소 야학 독서실 직업훈련 취업알선 모자사업 재기사업 공동작업장운영 무료진료소

# 불교의 사회복지 기능

제화하여 사회화기능, 신분부여기능, 친교적기능, 사회연대기능, 사회안정기능, 사회통제기능, 사회개혁기능, 사회복지기능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이와같이 어떤 사회제도의 기능에 다 사회복지적 기능이 있고, 각 제도 간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수용하지 아니하면 불교가 전파되어 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그 결과 불교는 바라문과는 절연한 자유사상에서 출발하면서 일상생활의 기술로서 전통적인 종교의식을 수용하게끔 되었다. 이때까지의 농촌을 중심으로 하

중생을 饑饉계함"이란 어디까지나 淨土往生, 즉 종교적 구제의 일이고, 현실의 사회적 구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러한 주장이 있자 종교적 구제를 사회복지사업의 범주에 넣을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이 생겼고, 사회과학과 종교가 서로 백안시 내지 이단시 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사회적 구제는 종교적 구제 없이는 불안전하고, 그리고 종교적 구제도 사회적 구제를 빼놓고는 성립할 수 없다. 즉, 사회적 구제나 종교적 구제가 각 한 쪽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서 오히려 구제를 위한 장치가 되고 있고, 이러한 고집에서 벗어나므로 해서 새로운 사회복지의 방법이 제시되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의 한 가지 前史로서 종교에 의한 구제활동의 역사여와하는 관계없이 정신적 평안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이며, 특수적이어서 어떤 경우에도 변동되

특사업 등을 통하여 학습부위기를 제공하거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료적 기능을 한다. 둘째는 보호적 기능이다. 불교사회복지의 활동을 통해 빈곤 장애 노령 이혼 부모사망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고 보호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결연사업, 불우청소년 장학사업, 보호감찰사업, 경로잔치, 재가노인봉사원파견사업, 노인무료급식사업, 장애인보장구지급사업 등을 통하여 보호적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는 예방적 기능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노령, 빈곤, 질병, 장애, 이혼, 실업 등의 발생을 예방하는 불교사회복지활동에 의한 예방적 기능을 말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불교협동조합을 통한 저축사업, 애교육, 직업교육, 가족상담사업, 전화상담 등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 언어철학

# 언어적 환상 부정

### <2> 불교의 언어관

불교에서 말하는 사구(四句)는 인간의 언어적 다름의 기본적 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같은' '다름' '있음' '없음' 등의 범주들을 의미한다. 백비(百非)는 문자적 의미로는 백 개의 부정이지만, 사실은 위의 네 범주조차도 부정한다는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다. 인간은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를 사용하는 기술을 습득해서 삶을 영위해 왔다. 도구와 기술이 있는 곳에 언어가 있고, 언어가 있는 곳에 도구와 기술이 있다. 더욱이 언어 자체도 인간의 도구이자 제도이다. 인간의 도구나 제도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언어를 서로의 의사전달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일상적으로 "저것은 사과가 아니다", "이것은 풀이다" 등의 긍정과 부정 명제를 늘 사용한다. 이러한 명제의 대상은 반드시 있는가, 아니면 있어야 하는가? 궁극적인 명제의 고유한 대상으로서의 실체는 그것이 명제에 의해서 무엇으로 밝혀지기 전에는 아마도 X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지만 명제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X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사구에 도달해서, 칸트의 의미에서 물자체에 대해서 알기알부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언어적 논쟁이나 분별이나

궁극적 근거가 세계의 실체라면, 이는 놀라운 사실인가? 아니면 실체의 있음은 우리의 언어적 문법에 사로잡혀 불가항력적으로 생각해진 문법적 언어적 환상인가? X의 있음은 부정해 버리는 것이 불교의 "모든 존재자들은 공(空)이다"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공'과 '사구백비'는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사구백비는 네 개의 기본 범주인 같은, 다름, 있음 그리고 없음을 바탕으로 산출되는 분별이나 판단을 해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존재자들의 실체라고 생각되는 언어적 환상을 부정하기 위한 개념이 바로 공이기 때문이다.

### 신간안내



### 근본교설 쉽게 해석

「불교의 이해와 실천」이중표 지음 이 책은 근본불교의 바른 이해를 위해 전남대학 철학과에 재직중인 이중표 교수가 1995년 9월1일부터 10월18일까지 불교방송에서 강의한 내용을 묶은 것으로 「아함경」의 중심사상인 삼귀의(三歸依) 무기(無記) 중도(中道) 십이입처(十二入處) 십팔계(十八界) 오온(五蘊)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불교의 바른 이해는 「아함경」에서 비롯된다. 후대의 불교는 모두 아함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흔히들 「아함경」은 근거가 낮은 중생을 위해 설한 소승경전이기에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완전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남김없이 다 말씀하셨다. 이 책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근본교설의 여러 개념들에 대하여 이중표교수의 철저한 해부가 돋보이는 우수한 저작이다.

**밝고 맑은 세상이 되기를...**

Ⓢ 발전 사회복지위원회·소비자보호위원회

불교총지중 충청·전라교구장  
사 홍 화 합장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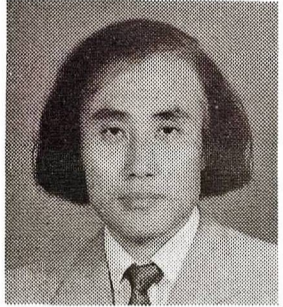
사회복지위원회·소비자보호위원회

불교총지중 대구·경북교구장  
수 성 합장



# “나는 불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은...

## 신행일기



김흥국박사

“믿는 종교가 있느냐?”

어쩌다 이런 질문에 접할 때마다 섣불리 “그렇다”라는 대답을 하지 못한다. 생전에 그토록 부처님을 믿었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고, 지성으로 영송하는 집사람에게 이끌려 총지중보를 찾은지 십년이 다 되어 가지만 스스로의 신앙심에 자신이 없는 까닭이다. 어느 자리에서건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치면 침 튀기며 불교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나 자신을 불자로 여겨본 적은 없다.

절에 다닌다 하여 불자라고 불러준다면 좋기는 하다. 그러나 누군가가 “불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실천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바로 그 말에 나는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 또한 이 오염된 세상에서 바깥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내 앞만 바라보며 달리는 사람이 아닌가.

출근시간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끔씩 빼먹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거의 날마다 아침 염송을 한다. 그런데 그 경건한 시간에 내가 서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조상영식 왕생성불... 집적원리... 지해복덕... 차량운전 무사고... 건강장수 사바하... 이 얼마나 이기적인 바람인가! 그래, 부처님께 매달려 개인의 행복만을 보장받고자 애쓰는 것이 불자의 소임이겠는가? 어디 부처님은 그저 빈다고 들어주시는 분이던가? 무지한 나로서는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을 다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불교라는 종교가 적어도 개인의 행복-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순전한 사적인 성공을 보장받는 수단만 아냐. 진정한 불자라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 일상에 대한 참회와 서원에 앞서야 할 것이다. “이전에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은 무지로 탐진치에 연유하여서...” 을조림판으로 참회가 될 수만 있다면! 아주 모르든 바는 아니다.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이제는 상식이 되어버린 부처님의 큰 가르침- 자비심, 누군들 모르랴. 그러나 아는 것은 아는 것일 뿐 그것이 결코 행함은 아닌 것들... 행하지 않는 자가 어찌 불자일까? 그렇다, 나는 솔직히 행함에 자신이 없다. 누구처럼 불우이웃 돕는 성금도 내라면 잘내고, 우연히 기회가 있으면 힘든 사람을 거들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런 일 자체가 사치일 정도로 내 생활의 희생엔 인색하다. 손해보기 싫어하는 내 마음

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 어쩌다 텔레비전이나 신문 같은 매체들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노라면 진정 감탄과 함께 자괴감이 밀려든다. 어찌 감히 불자라고 자처할 수 있겠나.

어느 정도 배웠다고 유식한척 하는 것도 흠이리라. 색즉시공 공즉시색, 불생불멸 부증불감...

색은 공이요 공은 색이니 물질은 에너지요 에너지가 곧 물질이라는 상대성 이론이 예 있지 아니한가? 나고 멸함이 없고 더함도 덜함도 없으나 하나 뿐이냐. 중생이란 본시 과학적 법칙이 반어심경엔 이미 설 파되어 있더라.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으면 혼자 깨달은양 떠들다가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본시 그 형체가 없다는 물질은 탐하고 소유 욕에 얽매이니 행하지 못하는 얽매란 부끄러움만 더해줄 뿐.

하για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나 하나 뿐이냐. 중생이란 본시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던가?

이렇게 속 편한 변명으로 갈등과 번민을 더어버리는 하루 또 하루, 고해의 바다는 끝이 없으며 눈만 돌리면 바로 언덕이 보인다. 내 마음은 아직도 먼 수행선을 향하고 있으니 언제쯤일까? 사심을 버리고 청정한 마음을 지향하며 진심으로 정진할 수 있는 날은, 물음으로부터 초연하여 지속할 수 있는 날은, 자신에게 “나는 불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은.

## 송옥선 보살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신 새벽 그는 조용히 일어나 정진을 한다. 그때가 새벽 4시, 삼라만상이 고요속에 있는 가운데 그는 홀로 일어나 가장 먼저 부처님께 인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일어나면 감히 누구도 하기 어려

## 이런 불자

운 정진을 하는 것이다. 「옴마니반메홍」 육자대명왕진언을 외우며 정진하기를 무려 두 시간 정도 계속한다. 수행자라도 하기 어려운 일을 재가자인 그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온 것이다.

매일 아침 철저한 수행을 하며 마음자리를 넓히고 있는 그는 지인사(정사 청암)에 다니고 있는 宋玉善 보살이다. 보살님의 생활 철칙 중의 하나인 바로 언덕이 보인다. 내 마음은 아직도 먼 수행선을 향하고 있으니 언제쯤일까? 사심을 버리고 청정한 마음을 지향하며 진심으로 정진할 수 있는 날은, 물음으로부터 초연하여 지속할 수 있는 날은, 자신에게 “나는 불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은.

# 새벽을 깨우며 30년 정진

것이다. 조보살의 생활은 불교와 너무나 가깝게 연결돼있는 것이다.

사람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한다. 돈에 중심을 두는 사람, 명예에 무게를 두는 사람, 사람에게 애정을 갖는 사람, 그리고 마음을 닦는데 인생을 바치는 사람 등. 이런 목적을 갖고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다. 누구의 인생이 더 좋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생의 중심이 수행에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삶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있다. 송옥선 보살의 삶은 우선 긍정적으로 평

고, 그는 언제나 그들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주어야 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은 문제도 안될 만큼 큰 문제가 28살 이직은 젊은 것이었다. 신기(神氣)가 온 것이다.

처음 얼마 동안은 꿈에 옥황상제가 그네를 타고 집으로 들어오는게 보인곤 했는데 곧 잠도 못자고,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쯤되자 물결은 보기에 딱할 정도였다. 그때 그의 시누이가 밀교를 믿고 있었다. 시누이의

지중 소속의 지인사를 다니면서 부터다. 시골에 살다 서울로 이사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교통사고를 내 재판을 하느라 재산이 다 날아가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어느날부터 남편이 잠도 못자고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사실 그때 그는 서울에서 마땅하게 다닐 사원이 없어 친구를 따라 천주교로 개종할까 하고 생각하고있던 중이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하게 되자 부처님께 법문을 내리셨다는 생각이 들어 부러워 사원을 찾았다. 그때 간 곳이

## 神氣없애려 입문... 불공후 눈 뜨게 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불자의 궁극적 목표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면 송옥선 보살은 누구 보다는 자신의 인생에 성실한 것이다.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잡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복된 일중 하나일 게다.

송옥선 보살이 밀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이다. 그때 그의 나이 28살이었다. 21살에 시집와 시부모와 시누이를 모시고 살아가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 사는 만큼 각각각색의 요구가 있었

소개로 「옴마니반메홍」 육자대명왕진언과 만나게 됐다. 열심히 하면 병을 낫게된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열심히 염송했다. 그런데 처음 얼마 동안은 염주를 들고 염송을 시작하면 구역을 하게 돼 도저히 할 수 없었다. 절망감에 쓰러졌다가 그래도 병을 나아자겠다고 이를 악물고 결심하며 다시 일어나 염송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은 조금씩 차도를 보였다. 세 달 정도 지나자 신기가 사라지고 몸도 완전히 나은 것이다.

그러나 조보살이 진언의 묘력을 실감하고 굳은 믿음을 갖게된 건 총

지인사다. 거기서 불공을 하고 전수법을 모시고 집으로 오니 2주일이나 잠을 못이루던 남편이 잠을 자고 있던 것이다. 그리고 전수법에서 불공을 하고 돌아가신 다음날 정말 놀랍게도 남편의 눈이 밝아졌다. 그때야 그는 크게 부처님의 위력에 탄복하게 됐고, 그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게 됐다. 이후 오늘날까지 그는 변함없이 정진하고 있다. 그의 믿음에 굳건한 만큼 가정에는 행복이 가득하다.

(금)

## 건강칼럼

### 위생적 음식보관으로 예방

#### 식중독

가원내과 원장 김옥희

냉장고의 보급이나 식품저장법의 발달로 식중독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요즘에도 여전히 자주 경험하는 질병이다.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은 세균의 번식이 쉬워 음식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다룰때 즉 손이나 칼, 도마같은 조리기구를 통해서도 식중독은 일어날수 있다.

식중독의 증상은 가벼운 복통이나 설사로 치료를 필요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원인균이나 독소의 종류에 따라 심한 탈수와 고열로 치사에 이르는 수도 있다.

예를들면 조리사의 끓은 삼치의 고름이 음식물에 묻은 경우 포도상 구균 식중독을 일으키는데 이때는 오염된

식품을 섭취한지 불과 2시간 경과후에 심한 복통과 구토를 일으키나 열이나 설사는 심하지 않다. 또 이런 독소는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다. 살모넬라 식중독은 오염된 우유, 육류등을 통해서 감염되고 음식섭취후 6~48시간지나 뒤에 복통, 설사와 고열이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한 가열로 예방이 가능하다.

비브리오 식중독은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여름철에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을때 발생한다. 오염된 어패류를 먹은후 16시간~20시간 경과후 나타나며 평소 간질환이나 알코올중독이 있는 경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식중독의 치료는 대부분은 증상이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치 않으나 유아나 노약자의 경우 주의를 필요하다.

심한 설사로 인해 탈수현상을 보일 경우 수액요법이 필요하며 이때 꼭 정맥주사가 아니라도 이온음료등을 경구

투여도 효과적이다. 식중독환자는 금식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환자가 먹을 수 있으면 이온음료, 이온음료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좋다.

그러나 급성기에는 우유나 우유제품은 피해야 하고 지방질음식, 카페인 등은 음식도 좋지 않다. 흔히 설사를 한 경우 쉽게 지사제를 복용하는 수가 있는데 이는 설사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열이 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하기도 하다.

모든 질병에서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식중독은 음식을 위생적으로 취급하고 적절하게 보관하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음식물은 조리해서 즉시 먹도록하고 보관이 필요한 경우 조리된 음식은 5℃이하로 차게하거나 60℃이상의 고온으로 보관해야 한다.

(문의 02)430-0447)

## 일상에서

### 나의 교화방편

서원당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반기는 것은 법단 위의 국화꽃이다. 가만가만 걸어가 부처님께 삼배하고 스승님께 합장하고 여러 보살님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한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들을 뵙게되어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며 합장하고 지리하여 않는다. 갖가지 서원이야 많았지만 “이름 완쾌되어 기쁘고 가정에 아무탈 없이 살아가고 고마워서 부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는다. 오전 10시 공식시간 육자대명왕진언을 염송한 21회 동안 온갖 번뇌망상으로 다섯 손가락 움직임의 노

고에 대한 보람도없이 끝내버리지만 회향서원후 한마디는 덧붙인다. “보살들의 각 가정에 재난없게 해주시고 화목한 가정되게 해주옵소서”라고.

처음 입교해서는 뭐가 뭔지도 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밀교에 반신반의 했으나 훌륭한 스승님의 설법에 매료되어 바쁜 아침시간에 책가방(경책, 필기구)을 챙기며 “오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또 어떤 재미난 설법을 하실까” 궁금해하면서 급히 대문을 나선다. 덕분에 愚癡하고 瞋心, 많았던 나였지만 설을 세 번 10개월이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누우침 뒤에 오는 歡喜心 그리고 無我和 我空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 바로 그것이야. 나라는 것도 없으며, 나는 無常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나는 크게 놀랐다. 精進에 放逸했었음을



「인어공주」. 최인애(7세).

하면서 차츰 밀교의 묘법을 알게 되어갔다. 貪慾도 줄어들고, 무엇에 滿足을 느끼며 항상 知足하며 살았다.

틈틈이 경전을 펼치며 나름대로 불교의 信徒답게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틈에 마음은 율러가 깨닫게 되었다. “그래, 바로 그것이야. 나라는 것도 없으며, 나는 無常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나는 크게 놀랐다. 精進에 放逸했었음을

어찌 아셨을까? 정말 부처님은千里眼으로 衆生들을 살피고 계시나 보다. 실은 금년 들어 화교(절)에 가는 것을 게을리해 왔고 精進 또한 의무적으로 정해놓은 염송만 했으니 나태해진 증생을 일깨워주시는 것이다. “스승님 고맙습니다.”

내일부터는 흠어진 마음을 주어 담고 勇猛精進해야지, 옴마니반메홍. 최옥선(정각사)

# 사회복지위원회·소비자보호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세가지의 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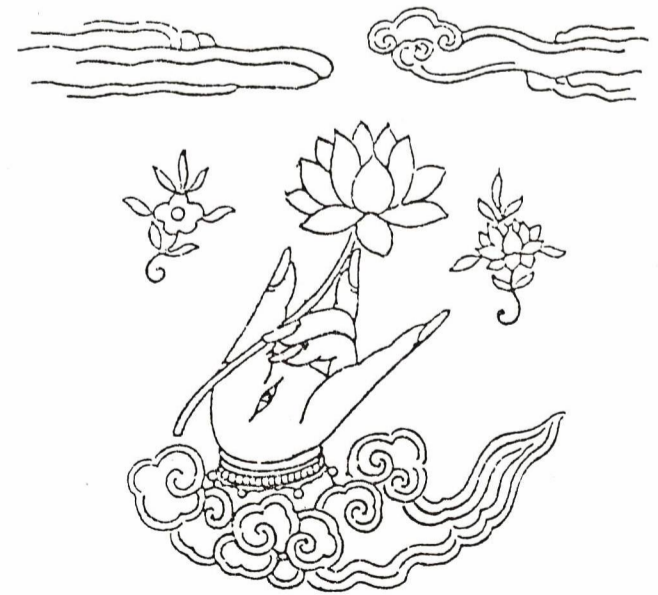
보시에 세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자기가 발심하여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남이 구걸(求乞)하므로써 보시하는 것이고, 세째는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하여 보시하는 것이다.

자기가 발심하여 보시하는 자는, 진여(眞如) 자성(自性)에 본래 한 물건도 없음을 관(觀)하여 자발적으로 보시하는 것이니, 이름이 무상시(無相施)요,

남이 구걸하므로써 보시하는 자는, 일체 중생의 구걸때문에 보시하는 것이니, 이름이 유상시(有相施)요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하여 보시하는 자는, 보살이 발심하여 중생제도하기를 서원하고, 일체 중생을 공양하고 보시하는데 그 마음이 쉬지 않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위 없는 정등(正等)보리를 서원하고 구하게 하는 것이니, 이름이 무위무루시(無爲無漏施)니라.

—대교왕경(大教王經)—



기묘생 신생월(김은숙) 합장



최도량선배

# 큰행사 도맡는 중심사원 합창단, 음성포교의 선구자 역할

## 滿寶寺



### 총지화 주교

한밭은 육상교통의 초점이고, 사람이 산으로 둘러싸인 넓은 대전분지에 자리잡고 있다. 삶의 조건이 좋아서인지 대전역에 내리자 사람들의 표정은 부드러웠으며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해 대도시인의 특징인 경계심을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주는 사투리에는 정감이 넘쳐 초행길이라도 조금도 두렵게 하지 않는 도시였다. 많은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높은 건물이 많아 도시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한밭인의 친절이나 소박한 표정은 산간 사람들과 같았다.

이런 고장 대전에 자리잡은 만보사 또한 이 분위기에 너무나 어울리는 사원이었다. 대전의 명물인 보문산 자락에 자리잡은 만보사로 오르는 길은 세속에 길게 묻든 이라도 금세 선정(禪定)에 들도록 할 것 같았다. 그 누구가 커놓은 항에서 나온 향내가 솔솔와 섞여 은은하게 흐르고, 보문산의 공기는 더없이 맑으며 산새소리가 정겹게 맞는다. 만보사에

서 가장 먼저 맞는 것은 회장 박승자 보살의 회사로 이뤄진 「滿寶寺」라는 글자가 새겨진 돌이다. 이곳 보살들의 신심만큼이나 단단해 보였으나 표면이 부드러워 만져보고픈 생각도 생기게 했다.

만보사는 기와지붕의 2층건물이다. 총지중단 소속 사원으로는 드물게 머리에 기와를 얹은 것이다. 전통적인 것을 사랑하는 總持華 전수님의 노력이 중단의 반대를 극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전통이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서구화 일색인 오늘날의 우리나라에서 불교사원까지 전통과 무관하다면 우리 후손은 어디에서 역사를 보겠습니까?”

총지중 사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원만무에(圓滿無碍)를 상징하는 구상(球相)이 대전을 내려다보며 모든 한밭인의 성불을 기원한다. ‘보배가 가득하다’는 뜻의 만보사는 이름에 걸맞게 많은 보물을 갖고 있다. 앞마당에 있는 거북이의 입에서는 보문산의 정기를 담은 약수물이 끊임없이 졸졸 흘러나와 교도는 물론 대전 시민에게 청정수를 보시하고 있으며 사원당에서는 대전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매일 교도들은 대전시를 굽어보며 무사와 발전을 기원한다고.

그리고 만보사는 전국에서 가장 큰 전당을 갖고 있다. 머리에 기와를



교도들로 법당이 가득 메워진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법회(위)와 만보사 전경.

얹은 2층 건물인데, 2층 서원당에는 몇 백명씩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있으며 1층 강당 또한 여느 예식장 보다 규모가 커 이곳에서는 벌써 14쌍의 부부가 탄생했다고. 또 총지중의 전국단위 행사는 주로 만보사에서 치뤄진다. 인원수용과 지형상의 조건이 맞아떨어져 그런 것이다. 건물의 크기에 놀라자 총지화 전수님은 따끔하게 일침을 놓았다.

“이전에 허름한 집에 있을 때는 마음이 확장했는데 집이 커버리자 오히려 물질인 건물이 사람을 압도



해 버리는 것 같”다며 “이런 큰 건물이 내 원력만으로는 이뤄지기 힘든데 전국의 스승님들의 덕분”이라고 말하는 전수님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서원당에 전국의 모든 스승님의 이름을 걸고 불공하는 것이다.

만보사가 건물만 큰것은 아니다. 사회활동 또한 뒤지지 않는다. 최근 들어 노래를 통한 포교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앞서 만보사는 일찍이 지난 1983년에 만보사합창단을 창단해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연습해왔다. 전통을 자랑하는 합창단은 전국의 불교합창단 가운데 10위안에 들어 각종행사에 초청받아 음성공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방송개국기념 행사에도 불려갔으며 그 실력을 대내외에서 인정받고있다. 또 만보사에서는 대전EXPO때 불교전통음식시연회를 개최해 총지중을 세계인에게 알리기도 했다. 이밖에 만보사의 자랑거리인 연등회날의 알찬 행사이다. 고려시대 우리 조상들의 범국민적 잔치날이었던 연등회를 계승해 만보사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이던 장기자랑 수여식 제등행렬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만보사에서는 전통밀교가 그대로 전해내려오고 있는 티벳의 불교지도자 립인포체와 사츄린포체 초청법회도 개최한 바 있다. 이는 총지화 전수님의 전통밀교에 대한 관심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보사가 처음부터 대사원

은 아니었다. 지금의 건물이 생긴지는 불과 4여년밖에 되지 않는다. 총지화 전수님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서원당에 전국의 모든 스승님의 이름을 걸고 불공하는 것이다. 만보사가 건물만 큰것은 아니다. 사회활동 또한 뒤지지 않는다. 최근 들어 노래를 통한 포교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앞서 만보사는 일찍이 지난 1983년에 만보사합창단을 창단해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연습해왔다. 전통을 자랑하는 합창단은 전국의 불교합창단 가운데 10위안에 들어 각종행사에 초청받아 음성공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방송개국기념 행사에도 불려갔으며 그 실력을 대내외에서 인정받고있다. 또 만보사에서는 대전EXPO때 불교전통음식시연회를 개최해 총지중을 세계인에게 알리기도 했다. 이밖에 만보사의 자랑거리인 연등회날의 알찬 행사이다. 고려시대 우리 조상들의 범국민적 잔치날이었던 연등회를 계승해 만보사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이던 장기자랑 수여식 제등행렬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만보사에서는 전통밀교가 그대로 전해내려오고 있는 티벳의 불교지도자 립인포체와 사츄린포체 초청법회도 개최한 바 있다. 이는 총지화 전수님의 전통밀교에 대한 관심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보사가 처음부터 대사원

## 불교설화 일곱 종류의 아내

부처님이 사위성에 계실 때의 일이다. 그 당시 사위성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들고 덕행 또한 높은 수닷타라는 장자가 있었다. 그는 인도에서 가장 으뜸가는 부자였다. 수닷타 장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혼인할 나이가 되어 역시 귀족으로 유명한 집안의 딸 옥아와 결혼시켰다.옥아는 이 세상에서 그 이름을 빌릴 데 없다는 뛰어난 미인이었다. 게다가 친정의 문벌도 높고 부자집 딸이라 그녀의 교만은 이루 말할 데 없었다.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툴툴하고 시부모의 말조차도 어렵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옥아를 며느리로 맞은 수닷타 장자는 마음 속으로 걱정과 근심이 태산같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며느리의 태도를 고칠 수 있을지 알담한 마음뿐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부처님이 기원정사



민화/宋氏부인, 100X150cm, 경희대 박물관 소장.

에 한동안 머무르시며 가르침을 펼친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렇게 생각했다. “부처님이라면 반드시 며느리 옥아를 교화시켜서 올바르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수닷타 장자는 부처님을 자신의 집으로 청하기로 마음먹고는 갖가지 공양거리를 마련하고 부처님을 기다렸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대문간에 나와 부처님을 맞을 채비로 분주했다. 그러나 며느리 옥아만은 본체 만체 자신의 방 안에서 한 걸음도 나오지 않고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그런 옥아의 눈앞에 찬란한 광명이 비치며 부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나타났다. 옥아는 놀라고 두려워하며 자신도 모르게 방 안에서 뛰어나와 부처님에게 무릎꿇고 예배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마음의 덕을 쌓지 않는다면 지금 걸음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서 마음을 한결같이 공순하게 가지는 일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옥아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고 위유치면서 묵묵히 서있었다. 부처님은 이런 옥아를 보시고는 다시 말씀을 계속하셨다.

“세상에는 일곱 종류의 아내가 있다. 어머니 같은 아내, 누이 같은 아내, 친구 같은 아내, 며느리 같은 아내, 종 같은 아내 그리고 원수 같은 아내가 있고 도둑 같은 아내도 있다.”

어머니 같은 아내는 남편을 아끼고 생각하기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듯 하는 아내이다. 둘째, 누이 같은 아내는 남편을 받들어 섬기기를 마치 한 부모에게서 혈육을 나눈 형제를 돌보듯 하는 아내이다. 셋째, 친구 같은 아내는 남편을 모시고 사랑하는 생각이 지극해, 서로 의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떠나는 법이 없다. 또 어떠한 비밀도 없이 서로 믿으며, 잘못된 일을 보면 서로 충고하고 실수하는 일을 만들지 않으며, 좋은 일은 칭찬을 아끼지 않아 지해가 나날이 밝아지도록 애쓰는 아내이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편안하게 지내기를 어진 벗처럼 하는 아내이다. 넷째, 며느리와 같은 아내는 공경과 정성을 다해 어른을 받들고, 겸손과 순종으로 남편을 섬기는 아내이다. 다섯째, 종과 같은 아내는 항상 어려워 하고 조심하여 교만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해 피하거나 거리낌이 없다. 남편을 공경하고 받들기를 마치 종이 상전을 섬기듯하니, 이것이 종과 같은 아내이다. 여섯째, 원수와 같은 아내는 언제나 마음 속엔 성이 가득하고, 남편을 보아도 반기지 않고, 밤낮으로 헤어지기만을 생각한다. 부부라는 생각이 없이 나그네처럼 여기며, 끝까지 싸우려고 달려들 뿐, 조금도 어려워하고 삼가는 마음이 없다. 일곱째, 도둑과 같은 아내는 친정이나 이웃에 가서 그들과 짜고 재산을 빼내려고 하며, 정부를 두르는 틈만 내면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아내이다. 급기야는 남편의 목숨을 역을 하게 빼앗고야 말 것이니, 이것이 바로 도둑과 같은 아내이다.

## 영험담

## 결혼 시켜준 부처님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라면 누구나 가슴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는 멍을 갖고있을 것이다. 같은 민족간의 유형전은 나라로 봐서도 큰 불행이었지만 국민 개개인에게도 더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북한군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남으로 침략해오기전까지 우리집은 유복했다. 당시 우리집은 서울에서 기계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든 가족간의 화목에서도든 남부러울게 없었다.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날 여동생이 낯선 사람들에게 끌려갔다. 그리고는 소식이 끊겼다. 동생을 찾기 위해 우리가족은 사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이를 감당하지 못한 어머니는 마침내 쓰러졌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좋은 약은 다 써보고 유명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보았지만 조금의 차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 병원에 입도 공장도 남에게 넘어갔으며, 우리 가족은 길거리로 나왔을 형편이었다 하는 수 없이 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빌려 나갔다. 일어에 능통해 일본인 가이드를 해서 누워 계신 어머니를 봉양하고 동생들의 화비를 마련했다.

어머니는 18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고 대소변도 받아내야 했다. 나는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 어머니가 정신이 없어 자신의 머리를 벽에 짚어 은몸이 멍으로 얼룩질 보고는 울음을 토했다. 차라리 돌아가시면 훨씬 편하실 것 같았다. 어머니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었다. 어머니를 위해 매일 육자대명진

언인 「옴나니반메춤」을 외었다. 어머니의 고통이 간해지길 간절히 기원하며 하루도 거르지않고 불공했다.밀교와 인연을 맺은 것도 어머니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고통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나의 불공이 이뤄져서인지 어느날 어머니는 아주 편안한 얼굴로 이승을 떠나셨다.

나는 52세가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병원과 동생들 뒷바라지로 결혼은 염두도 못내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도 안계시고 동생들도 더이상 나의 도움이 필요없게 되자 나는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열심히 불공했다. 역시 불공의 결과는 좋았다. 나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만나 늦은 결혼을 하게된 것이다.

박승자(만보사 신정회 회장)

그러나 만보사가 처음부터 대사원

## 총지불교대학 제2기 기초교리과정 개강 안내

- 강좌내용 : 근본불교의 이해
- 기간 : 2540년 9월 11일~11월 27일(매월 첫째 수요일과 공휴일 휴강)
- 대상 : 불교에 관심있는 모든 불자
- 장소 : 총지불교대학 2층 반야반 교실(본산 법장원 건물내)
- 시간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12시 30분(90분간)
- 수강료 : ₩ 20,000(수강신청서 납부)

본 강좌는 불교에 관심이 있거나 불교교리에 대한 기초를 튼튼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개설된 것입니다. 이 강좌는 『근본 불교』의 가르침을 통하여 참불교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실한 것인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은 이 강의를 통하여 지혜의 눈을 뜨므로서 희망과 보람이 넘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총지불교대학

(135-082)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직통전화(02)508-8933 대표전화(02)55201080~3 팩스(02)552-1082



BBS 편성표

Table with columns for time (시간), program name (프로그램명), and location (방송지역). Lists various BBS programs like '아침예배', '환희의 찬불가', 'BBS 뉴스', etc.

btn 하이라이트

btn극장-불문춘추(7월 26일 낮 12시35분)

근대 중국불교의 태두로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갖은 수탈로부터 민족 정신을 지켜내고 사회구조 활동에도 활발한 활동을 벌인 원영스님의 일대기를 드라마화한 작품.

특선 다큐멘터리-중국 불교의 축제(7월25일 오후 9시 35분)

중국불교는 증원과 티벳 그리로 상좌부로 나뉘어져 경축행사도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진다. 티벳불교에서는 쇠붙이가 가장 성대해, 이때엔 법 의우놀이 조상 기도대법회 설법강연 등이 있다.

증원불교에서는 떠도는 혼을 제도 하기 위한 수륙법회를 지낸다. 상좌 불교의 명절은 티벳이나 증원에서 상행되는 대승불교와는 다르다. 스님 들은 6월15일부터 9월15일까지 하얀 거를 지낸다.

특선 다큐멘터리-중국 불교의 정신(7월24일 오후 9시35분)

중국의 불교건축양식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종교적인 면과 생활적인 면이다. 종교적인 건축물은 부처님 보살 조사를 모시기 위한 대웅전 대불전 미륵전 관세음전 등이 있으며 선당 열불당 운수당 등이 있다.

염주는 14개 18개 21개 27개 36개 42개 54개 1백8개 1천80개로 나뉘는데 그중 백팔염주는 속세의 수많은 번뇌를 뜻한다.

藝人을 찾아



전각가 최규일씨

18x9cm 크기의 돌의 표면. 부리가 나오고 머리는 몸에 비해 작으며, 다리는 짧으나 발은 튼튼하고 날개가 작아 날지 못하는 닭의 형태가 간략하게 특징만으로 새겨져 있다.

주로 전자(篆字)를 새기기 때문에 전자(篆刻)이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개념을 벗어났기 때문에 현로의 작품이 이방인 대접을 받는 것이다. 그의 글씨는 차라리 그림이다.

돌에 혼을 새겨온 30년 외길 글자를 조형예술로 표현한 독창성

접했던 것이다. 상형문자에는 고대인의 순수한 의식이 담겨있고 진리를 향한 문이 있다. 그러나 현노가 고대인의 상형문자를 그대로 모방해 새기는 것은 아니다.

다. 작품을 통해 누구 보다도 행복하고 자유로운 것이다. 비좁은 공간에 있지만 하늘을 마음껏 나는 새 보다 자유롭고,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돌에 글자를 새기고 있는 동안은 세상을 다 소유한 사람 만큼이나 넉넉하다.

그에게는 스승이 없다. 즉 누구도 사사(師事)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전각가들이 한 스승의 작품을 모방해 결국 자기만의 예술세계를 이뤄내는데 비해 그에게는 처음부터 스승이 없었다. 그래서 더욱 독창적인 것이다. 칼의 선이 매끄럽지 않은 것도 그만의 특징이다. 우리나라 전각계에서 그는 이제 한 줄기를



최규일씨의 작품 「鷄」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성북구 정릉1동 138-12호에 위치한 허름한 건물의 지하다. 바로 위에서는 차들이 요란하게 클랙슨을 울리며 빠르게 달리고, 화려한 웃음 입은 사람들이 물질을 신으로 삼기며 바쁘게 살아가는데 반해 그는 지하에서 수염과 머리를 기른채 수도승처럼 앉아있는 것이다.

일지를 쓰며 작업을 기록하는 그는 거의 매일 일을 하는 것이다. 위의 말처럼 밥을 먹고 숨을 쉬는 것과 같이 일을 한다. 돈이 생기는 것도 명예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두침침한 지하실에서 무려 30여년을 돌과 싸워온 것이다.

치했다. 어느 누구와도 닮지 않은 현노만의 전각을 창조한 것이다. 혼자서 묵묵하게 외길을 걸은 그는 지난 85년 경인미술관 초대전을 시작으로 독일문화원 초대전 캔버리지 갤러리 초대전 등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까지 11회의 초대전을 통해 작품을 소개해온 것이다. 오는 연말에는 일본화랑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고. 요즘은 일본 전시회 준비로 더 바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각 작업에 빠져있다. 914-5500.

(金銀珠기자)

총지광장

총지광장은 불자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난입니다. 불공 행사 전 시 이전 모집 강좌 결혼 등 어떤 소식이라도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본란에 실어드립니다. FAX 552-1082

지장도 귀국



최고가를 기록한 지장도.

현존하는 지장보살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고려불화가 최근 우리나라로 돌아왔다. 13세기초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화는 최근 미국에서 한국회화중 국제경매사상 최고 가격인 13여억원에 낙찰돼 화제를 모았다. 지장보살도는 길이 98.5cm 폭 50cm 크기의 비단에 그려져있다.

동국TV불교아카데미 모집발표

불교텔레비전을 통해 9월2일 개강되는 '동국TV불교아카데미'의 모집요강이 발표됐다.

동국TV불교아카데미 방송통신교육을 통해 불교교육의 대중화를 꾀하고 불교사상전파의 전문인인 포교사를 양성함으로써 불교증흥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프로그램 제작은 7월15일부터 동국대학교에서 실시되며 교육기간은 2학기 1년으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50분씩 주당 6시간 학기당 1백44시간이다. 학기중 1회 이상 학교출석수업을 받아야 하며 2박3일간 사찰연수교육을 거쳐야 한다.

총지대학 수강생 모집

총지불교대학에서는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총지사내 불교대학에서 법장원 소속 김진태 연구원이 기초교리를 강의하고 있다. 수업은 8월 28일까지 계속되며 무료다. 문의 552-1080.

황제는 살아있다-한나라 황금보물전

중국 한나라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대규모 전람회가 9월30일까지 경복궁내 전통공예미술관에서 열린다. '황제는 살아있다-한나라, 황금보물전'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전람회는 68년 5월 우연히 발견된 전한시대의 불국이었다던 중사국의 초대 왕 유승과 두관왕후의 유물 1백2점

원전본사

관심의 유물은 '황금수의'. 이 수는 사람의 형상에다 네모진 다양한 옥편을 황금실로 엮어 옷을 만든 것으로 1급유물(중국의 국보)이다. 이외 '장신궁동' '금박산로' 등을 전시한다. 730-8256.

자원봉사자 모집

승과제가노인복지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수발 및 말벗이 되어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203-3677.

합창단원 모집

경인교구합창단에서는 단원을 모집한다. 만55세 이하의 음악에 관심 있는 불자면 누구나 가능. 매주 수요일 오후2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총지사내 강당에서 연습. 문의 552-1080.

1300년만에 나투신 부처님 사리

감은사지 삼층석탑·나원리 오층석탑에서 출현



사리(舍利)는 Sarira라는 범어의 음역으로서 사람이 죽은후에 남게되는 유골을 말하지만 이후에는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구슬모양의 유골만을 사리라고 하게 되었다. 특히 부처님의 사리는 진신사리(眞身舍利)라 하며 부처님의 교설인 불경근 법신사리(法身舍利)와 함께 불탑에 봉안되어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석탑이 조성된 것도 사리신앙이 매우 성행했기 때문이다.

왼쪽 사진은 지난 4월 감은사지 동쪽 삼층석탑을 해체 복원하던중 나온 것이다.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불교방송은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함으로써 자비, 평등, 해탈을 바탕으로한 인간 존엄성의 구현과 사회의 정토향을 추구합니다.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대중화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불교방송은 정법구현을 통한 불국정토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불교방송에 귀 기울이면 자비의 법음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일궈갈 것입니다.

불교방송 전국방송망 확장에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동참을 바랍니다.

불교부산방송과 불교광주방송의 개국에 이어 대구와 청주에서도 불교방송이 곧 개국합니다. 불교대구방송과 불교청주방송이 전국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설립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동참을 기원합니다.